



입덧 에피소드

글 안정원(고양시 덕양구)

저는 36살 주부입니다. 결혼한 지 1년 만에 임신해서 벌써 다음 달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요. 오뎅이(태명)도 제가 노산인 걸 아는지 입덧도 없고, 특별히 아픈 곳 없이 무난하게 임신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임신하고 보니 문득 친구가 입덧했을 때 들려줬던 에피소드가 떠올라서 사연을 보내봅니다.

때는 바야흐로 한겨울~! 제 친구는 입덧이 심했습니다. 물만 마셔도 물비린내가 난다고 제대로 못 마시곤 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입덧으로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 제 친구가 안쓰러우셨는지 친구 시어머니께서 백화점 지하매장에서 딸기를 사다 주셨다고 합니다.

“얘야 입덧이 심하다면서~ 과일은 좀 괜찮을지 해서 딸기 좀 사 왔다”

“어머 딸기네요~~ 감사합니다. 어머니~!”

그날따라 딸기가 맛있었던 제 친구는 딸기 한 통을 그 자리에서 다 먹었다네요. 이제 입덧이 한결 가벼워지나 보다 하고 기뻐하며 그날은 즐겁고 유쾌하게 시댁에 있었다고 합니다.

저녁이 되어 집으로 걸어서 돌아가는 길, 갑자기 도로 차의 매연 냄새가 확 코로 들어온 순간! 걷잡을 수 없는 구역질이 몰려와서 그 자리에서

당장 토를 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. 그 짧은 순간에도 주변에 민폐를 덜 끼치기 위해 얼른 보이는 하수구로 달려가서 한참 동안 먹었던 빨간 딸기들을 다 토해버렸다고 합니다.

한참이나 토한 후 드디어 속이 편안해진 순간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는데 이게 웬일인가요. 사람들이 우르르 그 친구 주변에 몰려있었다지 뭐니까!

“어머, 저 사람 피 토하는 거 아냐?”

제 친구는 “저 피 토하는 거 아니에요”라고 말하기도 민망해서 황급히 일어나 뒤도 안 돌아보고 빠져나왔다고 합니다. 차라리 길에다가 토했으면 딸기 잔해라도 남아서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았을 텐데 하수구로 토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피로 오해를 했나 봅니다.

그때 배 속에 있던 제 친구 딸이 지금은

벌써 초등학교에 다닙니다. 그때 친구 얘기 들으며 웃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. 입덧했을 때 딸기 드시는 분들 항상 조심하세요~!

